

“탈북민도 소중한 구성원…설 명절 온기 느끼길”

광주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 지원금 1000만원 전달
양진석 회장 “생활밀착 지원 등 안정적 정착 도움 것”

광주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광주경찰청은 10일 “안보자문협의회(회장 양진석) 임원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가정을 위해 사랑나눔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은 명절을 맞아 더욱 깊어지는 탈북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보자문협의회는 현장에서 격려의 말을 전하며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응원했다.

안보자문협의회는 지난 2024년 추석과 2025년 설 명절에도 각각 1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정기적인 지원을 이어오며 탈북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심과 후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양진석 회장이 2020년부터 후원에 적극 동참하면서, 안보자문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137명의 탈북민에게 68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지원금을 받은 탈북민 A씨는 “명절이 되면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마음이 유난히 허전해진다”며 “매년 잊지 않고 도와주시는 안보자문협의회 덕분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진석 안보자문협의회 회장은 “탈북



10일 광주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회장 양진석·오른쪽 세번째) 임원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가정을 위해 사랑나눔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민도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는 급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 교육과 생활 밀착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도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는 안보자문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경찰 역시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

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오월정신 ‘역사·의미·가치 확산’ 협력체계 구축

광주여성가족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업무협약
민주·인권·평화 가치 계승 시민 프로 공동 기획 등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가 10일 오전 재단 회의실에서 ‘광주오월정신 가치 확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오월정신 가치 확산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이날 협약식에는 오미란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재혁 유족회장과 박현호 상임부회장, 문성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은 유족회와의 협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 및 문화 선양사업, 5·18 관련 여성사 발굴·조명을 위한 연구 및 기록 사업, 5·18 관련 문화예술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운영, 성평등과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홍보 활동, 지역 여성·가족 네트워크, 5·18단체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교육 협력

사업 등을 상호협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 대표이사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5·18 여성의 역사와 의미를 다시 조명하려는 흐름 속에서 연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을 주문 강조해 왔다.

관련 복합공간 조성 연구, 콘텐츠 발굴을 통해 5·18 여성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축하고, 오월여성길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이를 확장해 광주 오월여성사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청사진이 주요 골자다.

이날 협약식에서 오 대표이사는 “유족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5·18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는 데에 더욱 더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오월여성사 발굴 및 오월 관련 시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오월 여성 자원화와 광주 민



광주여성가족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10일 재단 회의실에서 ‘광주오월정신 가치 확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주의 가치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광주오월여성사 발굴 및 기록에 앞장서 온 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게 돼 기쁘다”고 전제한 뒤 “5·18 당시의 기록뿐 아니라 이후 유족들

삶의 기록 관련 협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5·18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작품전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재단과 공동으로 기획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청림 실천’ 나눔으로 확장…사회공헌 활동 전개

광주과학관, 설 맞아 봉사단에 기부물품 전달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된 ‘청림 나눔 사물함’ 기부물품 전달식을 열어 봉사단체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정구 관장을 비롯한 감사팀 관계자와 ‘온정나눔봉사단’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청림 나눔 사물함’을 통해 접수된 기증품(총 56건)이 봉사단체에 전달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접수된 기부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청림 실천이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과학관은 앞으로도 청림 실천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정구 관장은 “청림 나눔 사물함은 청



림을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부가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지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청림과 사회공헌을 연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정광래 가나이엔지 대표(왼쪽 네번째)가 고향 발전을 응원하는 뜻으로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정광래 가나이엔지 대표, 보성 발전 기원

3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보성군은 최근 정광래 가나이엔지 대표가 고향 발전을 응원하는 뜻으로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정광래 대표는 출향 이후에도 고향 보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2024년과 2025년 각각 10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이번 기부가 출향 향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고, 고향사랑기부제

의 취지를 확산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래 대표는 “비록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보성에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보성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군수는 “정광래 대표의 지속적인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며 “앞으로도 고향과 향우를 잇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성=임태형 기자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오른쪽 네번째)과 직원들이 9일 엠마우스 어린이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조달청, 설 맞아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환)은 지난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관산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엠마우스 어린이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광주조달청은 어린이집 아동들의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교직원들에게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조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무안군, 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홍보

전통시장 방문…주민 대상 제도 안내

무안군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무안읍 전통시장 등을 돌며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안군은 2026년 무안고절2지구, 일로

의산2지구, 삼향지산2지구, 몽탄사창2지구, 청계도대지구, 해제천장1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로명주소 제도는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대형 건축물의 실내 공간까지 주소 기반 이동 경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든 설명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광양시는 최근 서울대남부학술림과 협력해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청소년 산림 진로캠프’를 백운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일원에서 운영했다.

광양시-서울대남부학술림 협력

청소년 산림과학 중심 진로캠프 운영

광양시는 최근 서울대남부학술림과 협력해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청소년 산림 진로캠프’를 백운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일원에서 운영했다.

이번에 참여한 학생은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등 전남 지역 8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7명으로 대학의 전문교육과 지역의 산림복지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대학’ 협력 모델의 하나로 추진 됐다.

서울대는 이번 진로캠프에서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와 나의 미래, 나무타기 및 연료 분석,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기여, 동물의 협동 행동 진화실험 등 산림과학을 중심으로 실험 실습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자연휴양림 내 ‘치유의 숲’에서 숲 명상, 산림치유 체험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백운산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성장을 돕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돼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jjin@

본사방문

▲황기연 전남도행정부지사